



모두를 위한 **예배와 설교**

『모두를 위한 예배와 설교』는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예배설교분과)에서
발간하는 단행본 매거진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니 다 가졌다고 우겨보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허전하고 슬프니다

오늘도 나는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욕심으로
물동이를 들고 나섭니다
분명히 나는 항아리 가득 채울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만족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다시 그립고
돌아서고 나면 다시 슬픈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다 가진 사람인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가요? ”



박도훈

(청주은파교회 담임목사, 시인)

박도훈, 『하늘아 하늘아』 (대한출판, 2017), 93.



모두를 위한 예배와 설교



Contents

Vol.3

우물가의 여인

박도훈

..... 3p

발간사

안덕원

..... 6p

01 특강)"인도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회와 선교" (Ministry and Mission for the Marginalized in India)

비제이 코마나팔리(Vijay Bob Komananpalli)

..... 8p

02 특강)"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전창희 | 박태남 | 안덕원 | 박양우 | 장주희

..... 9p

03 재의 수요일 예배를 위한 예전적 제언

안덕원

..... 10p

04 세대 통합 예배

백승자 | 우영 | 이순복 | 이제민 (KMDiv. 2021)

..... 18p

05 설교자 찰스 스펔전이 감내한 극야의 시간들

정희애 (KMDiv. 2021)

..... 21p

06 교회 가는 길

권예찬 (KMDiv. 2021)

..... 24p

07 교회 공간, 시대와 지역과 사람

정광일 (KMDiv. 2021)

..... 27p

08 설교자의 서재

차두진 (KMDiv. 2018)

..... 30p

09 그 한 번의 식사

김화평 (KMDiv. 2015)

..... 38p

10 2023년 2학기 교회탐방

정희찬 (KMDiv. 2021)

..... 42p

.....
information

..... 46p



발간사



2023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한 개신교인의 비율이 49%로 최근 몇 년의 추세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017년의 73%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2020~2022년까지 평균 약 32%인 것에 비하면 의미있는 증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예배 인원의 급감에 대한 불안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듯합니다. 한편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동영상으로 다양한 설교를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 교인(Digital Nomad Christian)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예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시대와 문화를 포용하는 예배, 소통과 참여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배와 설교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호에는 사순절의 첫날인 재의 수요일 예배의 순서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종교교회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설교세미나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면을 고려하여 자세히 다루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설교자의 서재]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차두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원고를 나누어 주신 박도훈, 정희애, 우영, 이제민, 백승자, 이순복, 권예찬, 차두진, 정광일, 정희찬, 김화평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을 베풀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며 기도해주신 분들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예배자로, 설교자로 부르신 소명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여정에 귀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안덕원 편집자 |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실천신학교수,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장

특강①

“인도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회와 선교” (Ministry and Mission for the Marginalized in India)

TTCSP

Special Lecture

**Ministry and Mission for
the Marginalized in India**
(인도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회와 선교)



Speaker :
Rev. Vijay Bob Komananpalli
(비제이 코마나팔리 목사)
- President of Refuge and Hope Mission
and Herald of Faith



April 12 (Wed.) 01:00 - 2:30 pm



Classroom 203, TTGU
Zoom ID: 879 8504 5538
(PW : 54321)

문의) 정희찬 010 - 4082 - 3670



TORCH RINITY
Graduate University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203호 강의실에서 핫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주최로 비제이 코마나팔리(Vijay Bob Komananpalli) 목사의 특강이 있었다. 코마나팔리 목사는 현재 인도의 빈민 선교 단체의 대표(President of Refuge and Hope Mission and Herald of Faith)이며 오랜 기간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회와 선교에 힘써왔다. 이날 강의에서 코마나팔리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설명하였는데 선교사역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주님의 명령을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신학교에서의 교육과 목회 현장에서의 성실한 배움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특강은 강남새사람교회(담임목사 전기철)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특강②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성서 본문 주석에서부터 유진 라우리의 “이야기식 설교 구성”, 폴 스콧 윌슨의 “네 페이지 설교” 등의 다양한 설교 방법론은 물론, 실제적인 설교의 경험들을 시도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 소개]



전창희 목사
종교교회 담임목사
전) 협신대학교 설교학 교수



박태남 목사
FUN CHURCH 방영교회 담임목사
CBS TV ‘올로한’ 출연



안덕원 교수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교수
전) Drew University 예배설교학 교수



박양우 목사
다치치교회 협력목사
전) 문제부 장관,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



장주희 아나운서
CBS 아나운서 ‘가스펠아워’, ‘올로한’ 진행
저서 ‘들리는 설교’

2023.09.18-20 (월-수)

장소
HL인재개발원
(경기도 기흥)

모집인원
5명

참가비
전액 후원

주최 및 후원
주최 : 하늘다리 아카데미
후원 : 종교교회, HL그룹,
햇불트리니티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신청QR



설교세미나 일정표

	18일(월)	19일(화)	20일(수)
06:00	점수 (~14:00)	기상	기상
07:00		아침 식사 및 교제	아침 식사 및 교제
08:00		강의 #3 & Workshop “네 페이지 설교” (강사: 안덕원 교수)	강의 #6 “목회자를 위한 연단스피치” (강사: 장주희 아나운서)
09:00		점심 식사 및 교제	각자의 설교 자리로
10:00			
11:00			
12:00	강의 #4 & Workshop “이야기식 설교구성” (강사: 전창희 목사)	각자의 설교 자리로	
13:00	저녁 식사 및 교제		
14:00	강의 #2 “설교자를 위한 본문주석 9단계” (강사: 장주희 목사)		
15:00	강의 #5 & 집회 “설교, 그러다” (강사: 박태남 목사)		
16:00	“늦박이 설교자의 소박한 바람” (강사: 박양우 목사)	강의 #1 & 포럼	
17:00	자택 식사 및 교제	강의 #2 “설교자를 위한 본문주석 9단계” (강사: 장주희 목사)	
18:00	교제 및 휴식	교제 및 휴식	
19:00	개회예배		
20:00	오리엔테이션		
21:00	교제 및 휴식		
22:00	교제 및 휴식		

과목 | 본문 주석, 설교 방법론, 설교 전달, 원고 작성, 설교자의 영성 등

교재 | - 네 페이지 설교 [폴 스콧 윌슨, WPA]
- 이야기식 설교 구성 [유진 라우리, 한국장로교 출판사] (무료 제공)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가 2023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HL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하늘다리 아카데미에서 주최하고 종교교회, HL그룹, 그리고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에서 후원한 이 행사에는 모두 50명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강사들로부터 살아있는 삶과 설교의 경험들을 듣고 최신 설교 동향에 대해 풍성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실제 연습을 통해 설교 작성 방법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현직 아나운서의 생생한 스피치 강의도 들을 수 있었다. 주최 측에서 강의와 숙식은 물론 교재까지 무료로 제공해 준 것과 종교교회 교우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03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예배를 위한 예전적 제언¹⁾

안덕원

들어가는 글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에 금식이나 구제를 강조하고, 기도회 등 특별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재의 수요일(혹은 성회(聖灰) 수요일)이고 그날 전통적으로 특별한 예배를 드려왔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재의 수요일의 교회력에서의 위치는 이렇듯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교회가 놓치고 있는 사순절의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순절이 곧 고난이라는 정형화되고 답습된 기억만을 공유합니다. 사순절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순례길이며, 어두운 땅속에서 움트고 있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공동체와 더불어 배양하는 기간이며, 부활의 기적을 기대하는 소망과 은총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참회와 구도의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재의 수요일에 담아야 할 기도와 설교와 찬양의 내용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물론 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과 교회공동체가 사순절을 함께 시작하며 그 깊은 의미를 공유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경험입니다.

재의 수요일의 주제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 하)라는 인간의 정체성 선언에 대한 진지한 숙고입니다. 재를 사용하는 것은 흙에서 온 유한한 인간 존재의 근원을 자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성의 패망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즉 재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유한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비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는 한 해전 종려주일(Palm Sunday)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잎을 태워 재를 만들고 그 재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의례를 행합니다.

1) 이 글은 필자가 목회와 신학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안덕원, “목회를 위한 예배와 예전 레시피(13) : 재의 수요일, 사순절 첫날을 위한 예전적 제언,” 『목회와신학』 380 (2021.2), 90-97.

예배를 위한 조언

1. 미국 장로교회의 예전²⁾

우선 미국장로교회의 예전을 기초로 한 예문을 소개합니다. 물론 한국의 개신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순서를 생략하거나 바꾸어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³⁾

(이 예문은 재의 수요일 예배순서로 성찬식 전에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의미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의례를 포함하였다.)

1. 모임(Gathering)

-전주(PRELUDE)

-인사와 사순절로의 초청 (GREETING, ANNOUNCEMENTS, AND INVITATION TO LENTEN DISCIPLINE)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회개의 필요성과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인자 하심과 용서를 생각하며 시작해야겠습니다.

부활절로 향하는 여정을 성경에서 회개의 상징인 재와 더불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유서 깊은 상징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려주고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회개를 일깨워줍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웃을 위해 자선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로의 부름(CALL TO WORSHIP)

요엘 2:1-2, 12-14 (여건이 허락된다면 발코니 등 특별한 장소에서 낭독한다.)

*찬송가

참회의 기도(CORPORATE CONFESSION OF SIN) (2명이 동시에 읽거나 나누어 읽는다)

함께: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흠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목소리 1: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선물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목소리 2: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창조의 섭리와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목소리 1: 우리의 이웃들을 무시하고 죽이며 짓누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 미국장로교회(PCUS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3) Paul Bradshaw ed.,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p. 30. 재의 수요일은 주후 7세기경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회에 정착된 것은 중세 중기이다. 주로 예전적인 교회에서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만, 현재 개신교 내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보편화되어있다. 참고로 미국장로교(PCUSA)와 미연합감리교회(UMC)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재의 수요일 예배 전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한국교회의 경우 예배예식서에 재의 수요일 예배순서를 제공하거나 공식적으로 드리는 교단은 성공회, 루터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배와 예식서』(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16), 130-136을 참고하라. 청파교회의 재의 수요일 예배를 참고하라.



2번 QR 코드



3번 QR 코드

목소리 2: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하느라 거짓에 물들고, 약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함께: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불쌍한 이들의 신음에 귀를 닫았습니다.

목소리 1: 주님,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목소리 2: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 1: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목소리 2: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우리가 흠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함께: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겸손하게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로의 부름(CALL TO WORSHIP)

재를 바르는 예식(IMPOSITION OF ASHES)

(이마에 재를 바르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진행한다.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집례자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라!” 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

사죄의 확신(ASSURANCE OF PARDON)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 25-27, 개역개정)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진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2. 말씀

설교 전 기도(PRAYER FOR ILLUMINATION)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03)

설교

3. 성찬식

성찬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흠에서 왔고 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은 흠입니 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죽음과 영생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세상을 위해 부서지고 나누어지는 희생의 신비 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국의 잔치 를 미리 맛보고 이 기쁨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사기도 (GREAT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아멘 (AMEN)

분별분잔

성찬 후 결단의 기도 (PRAYER AFTER COMMUNION,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 생명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주 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파송 (Sending)

*찬송가 (HYMN)

*축도 (BENEDICTION AND CHARGE)

*후주

2. 다양한 적용사례들

1) 간소화한 예전

다음은 여러 재의 수요일 예배를 참고하여 블렌디드 예배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⁴⁾

순서	내용	시간
전주		3분
인사와 사순절로의 초청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의 의미	2분
예배로의 부름 / 초청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12분
참회의 기도		2분
찬양	“주여 비오니”(O, Lord Hear My Prayer)	2분
재를 바르는 예시	“너는 흙에서 왔으니”	4-5분
사죄의 확신		1분
말씀		15분
파송의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3분
결단의 기도 / 축도	“너는 흙에서 왔으니”	2분
후주		30초

2) 기도문 포함하기

기존의 수요일예배의 순서를 그대로 두고 공동기도를 통해 재의 수요일을 알려주고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필자가 만든 다음의 기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작은 바람에도 흠어질 재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재와 같이 완전히 태워져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회중: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집례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중: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집례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손과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집례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4) 이 예전을 사용하여 드린 예배의 동영상을 참고하라.
예배에서 사용한 “너는 흙에서 왔으니”는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라.



4-1번 QR 코드



4-2번 QR 코드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집례자: 주님을 찾기보다 이기적이고 허황된 생각으로 일상을 채웠으며,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무시하며, 욕심내고 불평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집례자: 이웃의 고통을 보며 눈을 감았고, 아픔의 신음에 귀를 닫았고, 베푸는 일에 주저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집례자: 주님 간절히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3) 참회의 기도에 포함시키기

참회의 기도가 이미 예배순서에 있을 경우 사용할 만한 예문을 소개합니다. 회개로 부름으로부터 마무리 기도까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회개로 부름

“주님,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이 의미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생명과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됨을 모두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릴 경우 위의 기도문을 사용하거나 시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편의 경우 51편 1-17절을 추천한다)

기도 후 용서의 말씀 (로마서 8:1-2)

마무리기도 (혹은 광고를 통해)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이 이 어둠 가운데 움트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절제하며 근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4) 광고와 기도에 포함하기

설교 후 다음과 같이 안내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재의 수요일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경건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 읽기, 회개와 새로운 출발의 다짐, 금식과 구제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수요일예배에서는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재를 바르는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지하고 무력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죽음과 생명의 상징으로 주신 재를 이마에 바르며 회개하며 새롭게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요, 용서의 주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이심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5) 떼제 공동체의 찬양 사용하기

몇몇 교회들이 떼제의 찬양을 사용하여 회개하고 묵상하며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또한 권장합니다. 기존의 수요일예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드려도 좋고, 예전의 순서를 그대로 두고 몇몇 찬양과 침묵기도를 포함시켜도 좋겠습니다.

6) 예전적인 조어들

재를 바르는 예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배 중에 자연스럽게 넣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간단한 기도로 대체하면 좋을 것입니다. 교회공동체마다 상징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기에 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니만큼 장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절기를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재와 참회의 이미지를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통해 참회의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절기에 어울리는 배너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강단에 간단한 상징 혹은 장식을 사용하여 절기를 표현하는 것도 권장하는데, 예를 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잎이 없는 거친 느낌의 나무장식을 사용하고 부활절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시각적인 효과를 살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도문을 나누어 읽는 등 순서를 배분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에 대한 안내를 담은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사순절 묵상과 기도문, 실천할 내용을 직접 적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나가는 글

재의 수요일은 참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순절의 첫날,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가 내는 호흡과 소리를 주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룩한 조율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순절은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발맞춰 함께 자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재의 수요일을 통해 거룩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사순절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흠에서 왔으니 (화성)

곡/사고 아라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
5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
9
먼지와 같은 내 인생
먼지와 같은 내 인생
13
티끌과 같은 내 인생
티끌과 같은 내 인생
17
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소서
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소서

Copyright © 2021 고아라-예배음악

21
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소서
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소서
25
아 멘 아 멘

“너는 흠에서 왔으니(화성)” 악보

024

사역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와 세대통합예배를 통한 해결

백승자, 우영, 이순복, 이제민
(KMDiv. 2021)

1. 문제제기

A교회는 개척교회이다. 대부분의 교인은 50대와 60대이며 부모님을 따라 나오는 어린이들이 10명 내외이며 연령대는 5세에서 20세까지 다양하다. 연령별로 아이들을 구분하여 예배를 따로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5세부터 20세의 아이들을 한 부서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어른들 중심의 교회 예배와 운영 속에 아이들은 교회에 마음을 못 붙이고 겉돌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 교회의 57%뿐이며 나머지 43%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에도 44%의 교회는 20명 미만의 아이들만 있을 뿐이다.

교육 부서를 따로 운영할 수 없는 교회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사역 현장의 문제를 알아보고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측면을 바탕으로 목회적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해결 방법 및 신학적 이해 : 세대통합예배

세대통합예배의 정의는 연령별, 세대별 구분이 없이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본문을 통해 교회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임을 시사한다(롬 12:5, 고전 12:12, 엡 4:3).

이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책무는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대물림 해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골 3:16, 딤후 5:12).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1) 전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증거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쉬며, 창조주이시며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다(출 20:10).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예배) 드리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헌신하는 날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존재하는 언약공동체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백성은 부름 받은 공동체로 세대 구분 없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율법에 경청하고 예배를 드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 21:24)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 5: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신 31:11)

(2) 전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신약에 나타난 증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선교 활동과 초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대통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본문에서 ‘가족이나 무리’는 곧 세대통합을 의미하며, 사도들의 선교활동 후에는 그 대상이 이방인까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설교와 세례 그리고 예배까지 모든 사역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 19:13)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3.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본 세대통합적 형태의 교회 예배

16세기 츠빙글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이해했다. 그들이 말하는 성도의 연합은 모든 신자들의 사귀를 뜻하는 것으로 남녀노소 간의 구분이 없는 교제라고 했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는 가시적으로 세상 속에서 성경에 기초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그

들의 자녀들과 함께 모인 곳”이라고 고백한다(wcf25:2). 개혁교회의 주일예배는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함께 세대통합적 예배를 드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일학교의 시작과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일학교는 영국 글라스터에서 출생한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에 의해서 1769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다. 어린 아이들까지 하루 15 시간씩 주 6일을 노동에 매달리면서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빈민촌이 형성되었다.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으며 사회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주일학교는 처음에는 성경말씀을 가르쳐주는 모임이 아니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빈민촌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교회에서 받아들여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교회 학교는 성장하기 시작했다.

4. 목회적 실천 방향

앞서 문제 제기한 교육부서를 따로 운영할 수 없는 A교회는 교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A교회에 모아 주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목양한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 A교회에 소속감을 잃지 않고 한 가족으로서의 영적 공동체성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한다.

5. 세대통합예배를 위한 구체적 전략

- (1) 세대통합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교인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인지시킨다.
- (2)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방문하여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 (3)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는 초신자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한다.
- (4) 세대통합예배 순서에 세대별로 책임을 적절하게 분담하여 젊은 세대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5) 교회 구성원들이 연령을 초월하여 동일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6) 전 교인 수련회를 개최하여 전 세대가 함께 예배, 율동, 보물찾기, 성경암송등을 통해 세대 공감을 이루어낸다.
- (7)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회 시간에 자녀 세대를 위한 특정한 날을 정하여 젊은 세대는 기도하는 부모 세대를 보고 배우게 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 (8) 모든 세대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05

설교자 찰스 스펔전이 감내한 극야의 시간들

정희애(KMDiv. 2021)

하지 무렵 북극권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다. 이를 백야(白夜) 현상이라 한다. 반면 동지 무렵에는 해가 지평선 위로 뜨지 않아 온종일 캄캄한 극야(極夜)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의 인생은 백야와 극야의 반복이다. 빛으로 채워진 백야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암흑만 가득한 극야의 시간을 마주하곤 한다. 여기, 한 설교자가 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아득한 극야의 시간을 삼켜야 했던 그는 바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펔전(Charles H. Spurgeon)이다.

헛불트리니티에서의 마지막 학기에 ‘서구 복음주의 설교자 연구’를 수강하며 스펔전의 생애를 깊이 다룰 기회가 있었다. 17세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스펔전은 그로부터 2년 만에 마을 전체가 회심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며 명성 있는 설교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26세에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Metropolitan Tabernacle)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 강단의 부흥을 일으키며 영국을 넘어 온세상에 영향력을 펼친 스펔전의 화려한 성공은 이미 검증된 지 오래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펔전이 이룬 성과들의 경이로움보다 가시적인 성취에 기쁨을 두지 않았던 스펔전의 겸손한 태도에 눈길이 갔다. 그보다 더 깊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설교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스펔전이 머금어야 했던 슬픔과 눈물의 시간들이다.

스펙전은 어린 시절부터 내면의 탐구에 몰두했다.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죄를 깨닫는 길고 쓰라린 시간에 대해 그는 이렇게 묘사한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고통스럽게 깨닫는 과정을 다시 겪으니, 차라리 더없이 고통스러운 병을 7년 앓는 쪽을 택하겠습니다.”¹⁾ 무거운 죄의 짐으로 괴로운 밤을 지새우던 스펔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마저 의심하며 번뇌했다. 고통이 더해질수록 구원을 향한 갈망은 깊어져만 갔다. 거센 눈보라가 요동치던 겨울날,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평신도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침내 스펔전은 회심을 경험한다. 그는 환희와 감격의 때를 떠올리며 기록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순간, 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더없이 뜨겁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²⁾ 절망의 끝에서 여명(黎明)을 맞이한 순간이었다.

1) Charles H. Spurgeon, 『C. H. Spurgeon Autobiography: The Early Years, 1834-1859』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2), 59. Arnold A. Dallimore, 『찰스 스펔전』, 전의우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48에서 재인용

2) Spurgeon, 『C. H. Spurgeon Autobiography: The Early Years, 1834-1859』, 87-90. Dallimore, 『찰스 스펔전』, 55에서 재인용

회심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스펔전은 또다시 괴로움을 마주했다. 자신을 유혹하는 내면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이다. 회심하면 더는 영적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스펔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끝나지 않는 싸움터라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그는 삶의 비극을 회피하기보다 비극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치열한 분투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끌어안았다. 격렬한 분투 속에서도 물에 탄 복음이 아닌 명료한 복음만을 선포하며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설교자로 거듭났다.

많은 사람들이 스펔전의 설교에 감탄했지만 그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스펔전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 장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 자격에 대한 조롱은 끊이지 않았다. 극단적 칼뱅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아무리 성정이 강직했던 스펔전일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 무렵 스펔전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 대참사가 일어났다. 그가 서리 가든(Surrey Gardens)의 음악당에서 설교할 때 계단 난간이 무너져 7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었다. 쉽사리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스펔전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설 때면 곧바로 숨이 막힐듯한 압박을 느꼈고, 그때의 비극적 사고를 떠올릴 때마다 종종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는 또 다른 고통에 짓밟히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기에 충분했다.

스펠전은 지독한 육체적 고통도 겪었다. 34세에 과로와 신경 쇠약으로 한동안 몸져눕게 되는데 이후 평생에 계속될 류머티스성 통풍으로 힘들어했다. 사역 기간 내내 건강을 잘 유지한 때가 드물었던 스펔전은 건강 문제로 강단을 비울 수밖에 없을 때마다 마음 아파했다. 온전히 견뎌야 했던 육체적 통증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우울증을 겪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문제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으나 정작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는 타버나클 교회와 부속 기관들의 큰 짐을 혼자 지며 마음의 부담감은 배가되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고통과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는 날이 무수히 많았다.

19세기 중반 무렵, 고등 비평과 신신학의 발전으로 기독교 신앙은 소란스러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성경을 분명하게 변호했던 스펔전은 자신이 속한 침례교 연맹이 다른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현실에 비통을 금하지 못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끝내 스펔전은 침례교 연맹을 탈퇴하기에 이른다. 이후 극심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 나갔다. 침례교 연맹에 속한 동료들과 갈라서야만 했던 스펔전은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스펔전에게 복음이 사라진 강단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 진리의 원칙을 사수하는 것은 당연했다. 성경을 부정했던 교회들이 점차 영적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스펔전의 주장은 옳았다고 입증되었으나 논쟁을 지속하며 받았던 아픔과 슬픔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았으리라. 끝나지 않는 암흑 속에서 반복되는 좌절과 슬픔을 고스란히 겪었던 스펔전. 그러나 스펔전은 복음을 사수하며 진리를 선포했던 설교자이자 삶의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진실된 격려의 언어로 설교하는 설교자였다.

스펠전이 당면한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며 그의 진정한 설교 현장은 거룩한 강단 위가 아닌,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회중석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증언으로서의 설교’에서 설교자는 ‘회중석에서 강단으로 나와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³⁾ 즉 설교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애통의 눈물, 그리고 절망 끝에 맞이한 환희’로 가득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회중들 곁에서 설교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스펔전은 바로 그러한 설교 현장을 살아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의 순간들로 성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슬픔의 언어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더 나아가, 외로운 적막 가운데 있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고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긴밀히 찾으십시오. 죄인들과 더불어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으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술주정뱅이들과 친숙하게 알고 지내십시오.”⁴⁾

스펠전 생애에 그려진 수많은 사건 중에 고통의 시간들에 주목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사역자로서 마주했던 필연적 어둠을 어떻게 삶에 녹여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사역자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한 절망과 고독한 외로움이 사방을 가로막는 듯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서성일 때 스펔전의 삶이 눈앞에 다가왔다. 스펔전에게는 찬란하게 빛나는 사역 뒤에 괴로움을 직면하는 아픔이 있었다. 주님을 의지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길 오롯이 기다리는 감내의 시간이 있었다. 단순히 스펔전의 대단한 인내와 강직함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눈부신 날을 지나 마주한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주님의 애뜻한 사랑을 그의 삶에서 발견한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짓눌린 자들, 우울과 불안으로 괴로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주님의 초대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백야가 가고 극야가 오듯, 우리의 삶에도 백야의 때가 지나면 짙은 어둠만이 지속되는 극야의 시간이 다가온다. 극야를 마주하는 두려운 떨림을 사랑하자. 절절한 슬픔을 안고 주님께로 달려가 안기자. 극야가 지나가고, 마침내 맞이할 영광의 백야를 기다리자.

3) Thomas G. Long, 『증언으로서의 설교』, 정장복, 김운용 역 (서울: 쿤란출판사, 199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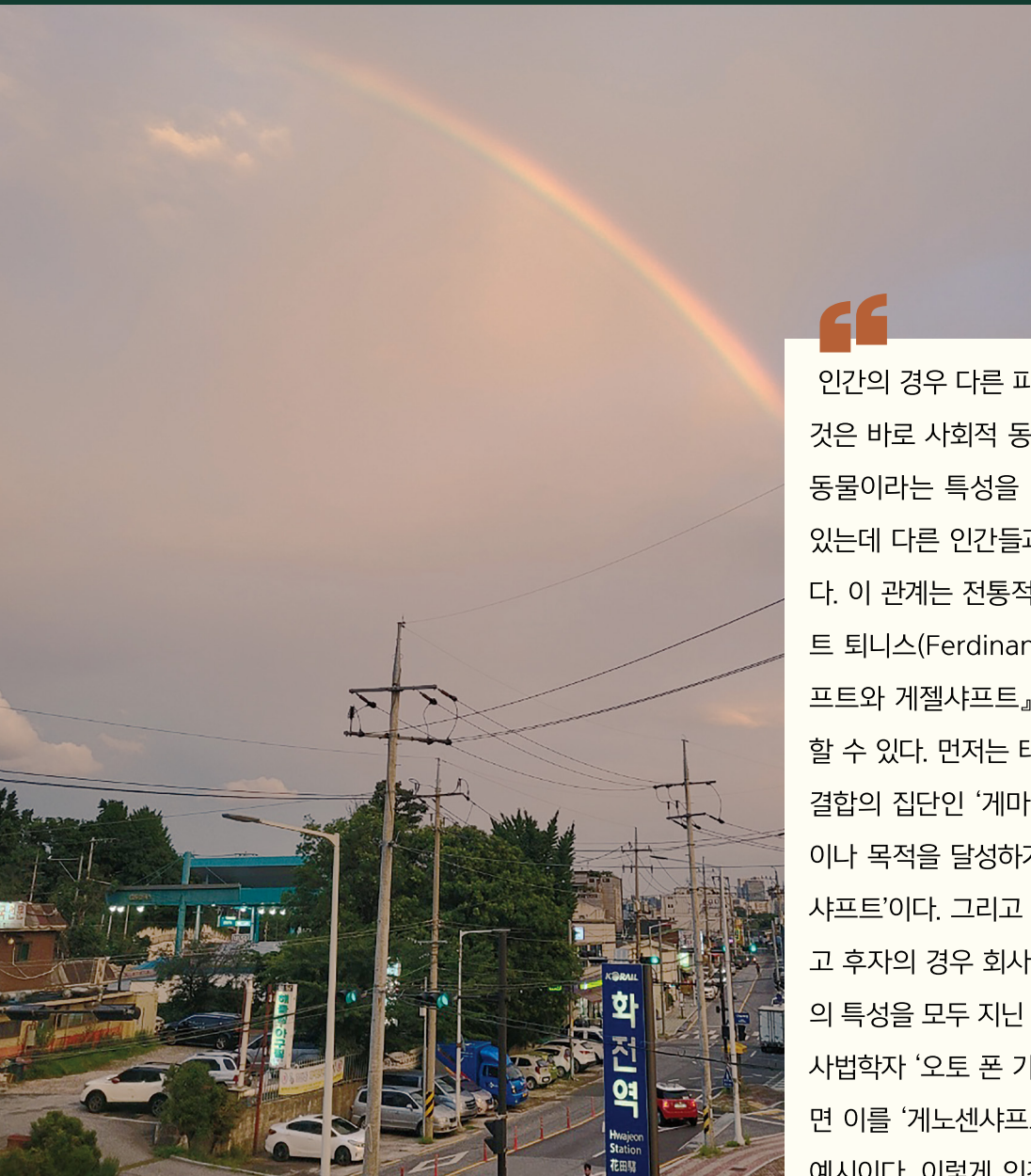
4) Charles H. Spurgeon,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원광연 역 (서울: CH북스, 2018), 506.



06

교회 가는 길

권예찬 (KMDiv. 2021)



“

인간의 경우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만드는 인간의 관습이 있는데 다른 인간들과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전통적으로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퇴니스(Ferdinand Tönnies)’의 저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1887)에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자연적 결합의 집단인 ‘게마인샤프트’이고 다음은 같은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젤샤프트’이다. 그리고 전자의 집단은 가족 등이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 회사, 정당 등이 포함된다. 다만, 양쪽의 특성을 모두 지닌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독일의 역사법학자 ‘오토 폰 기르케(Otto von Gierke)’에 따르면 이를 ‘게노센샤프트’라고도 한다. 학교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서로 다른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

그런데 이 관계적 특성이라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정주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혈연 중심의 ‘게마인샤프트’의 공간과 나머지 공간의 구분이다. 즉, 가족 중심으로 정주하는 공간과 가족 외의 구성원들과 함께 정주하는 공간의 구분이다. 물론, 현대시대에는 위 이론이 제시되는 시대와 다르게 핵가족을 넘어서서 1인 가족이라는 개인화된 집단도 등장했다. 그렇지만 개인 가구부터 핵가족 그리고 과거의 마을 단위에 포함되는 대가족이 정주하는 공간과 그 외의 집단인 회사, 학교 등으로 사람들이 정주하는 공간에는 구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족 중심의 공간을 사적 공간, 가족 외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공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형성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의 경우 공적 공간이지만 회사나 학교와 같이 목적성을 가진 집단의 소유가 아니며 일반 대중들이 공동의 이익 창출이 아닌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기에 준공적 공간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공원, 주차장, 그리고 골목길과 같은 보행 공간도 포함이 된다. 참고로 이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떨어져 있기에 공간 사이의 간격이 생기고 그 안에 위와 같은 준공적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준공적 공간 중에서 거의 모든 대중들에게 날마다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준공적 공간이 있는데 바로 보행 공간이다. 여기에 더하여 단순히 걷는 공간을 넘어서서 버스, 자가용과 같은 차량이 이동하는 차도 그리고 지하철 및 기차가 이동하는 철도도 포함하고자 한다. 어떤 누구도 인도와 차도 그리고 철도 없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를 이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매일의 삶에서 이와 같은 길에서의 시간이 중요하다.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이동하며 학교와 회사 생활을 위한 삶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부족한 잠을 자면서 삶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여가 생활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어떤 이는 자전거와 운동 수단을 통해 이동하면서 하루의 삶을 건널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길어질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기분 좋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기도 한다. 거꾸로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의 이동도 중요하다. 자신 혹은 가족의 개인 공간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하루를 길에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 또한 잠, 여가 활동, 지식 습득 혹은 불평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적 공간의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날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길 위에서 겪고 변화되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회사, 학교와 다른 공간을 하나 더 방문해야 한다. 바로 일요일 마다 방문하는 교회이다. 그곳은 공적 공간이면서도 사적 공간이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목적성도 있지만 가정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의 특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교회까지 이동해야 한다. 일반 대중들이 오전에 가정에서 회사나 학교를 가기 위해 길 위를 지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걷고 이동하는 것처럼, 교회를 갈 때도 길 위를 지나가야 하고 돌아올 때도 길을 따라 걷고 이동해야 한다. 이 사실은 교회를 가는 시간과 교회에서 돌아오는 시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이다. 예배 없는 신앙 생활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하러 나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거꾸로 교회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예배에서 나누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구성원의 사랑을 간직하며 그리고 한 주간 나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 이 사랑을 나눠줄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걷는 골목길,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자가용과 같은 운송 수단 등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고 이성균 목사님의 1989년에 발매된 CCM ‘골목길 걸을 때’의 가사 일부를 첨부해 본다.

“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면은
우리 주님 네온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그 사랑 알 수가 없어 기쁜 날을 주신 나의 예수님
나 항상 흥에 겨워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나 항상 사랑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이성균, 1989)

”

07

교회 공간, 시대와 지역과 사람을 아우르는

정광일(KMDiv. 2021)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끝난 4세기 초반 이후, 교회라는 공간은 비로소 가정교회나 카타콤 등의 지하세계를 뚫고 지상세계에 공식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지역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으로 대표되는 초기 교회 건축은 로마 궁정의 건축 양식과 궁중 장식이 더해졌기에 굉장히 크고 화려했다고 전해 집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각 나라들마다 마치 경쟁하듯이 더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나중에 그 화려함이 지나쳐서 여러 이콘이나 장식들이 우상화되는 문제가 되었지만, 초기의 의도는 분명 자신들이 믿는 크신 하나님을 널리 드러내고 찬양하고픈 신앙의 순수한 표출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글과 책이 많이 보급되기 이전 시대였기에 그러한 장식이나 그림들이 신앙교육의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개신교의 교회들은 의도적으로 그 과도해진 화려함을 덜어내고 수많은 이콘들을 교회 공간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모두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설교단을 회중 가까이에 조금은 높은 곳에 드러나게 배치했는데, 과거의 예전 중심의 미사 예배에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내고 전하는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로의 전환이라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금은 비대해진 설교중심, 목회자중심의 예배에서 무게중심을 덜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강단의 높이가 낮아지고, 강단 위에 있던 거대한 의자들이 사라지고, 강대상의 크기도 점점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건축과 공간은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따라 다양한 형태로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더 나은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재학 중에 기회가 되어 만 1년 정도 동기들과 팀을 꾸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을 둘러볼 수 있었고,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동송교회’는 풍경 좋은 언덕이 한눈에 보이는 계단에서부터 여러 교육부서들이 모여 있는 지하공간으로도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게 한 공간설계까지, 그 건축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저에게는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동송교회

양평에 있는 ‘국수교회’는 C자형, 성남에 있는 광현감리교회는 ㄷ자형으로 회중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단만을 바라보던 구조에서 서로 함께 마주보며 예배하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느낌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국수교회

하지만 제가 경험한 모든 교회 공간이 다 좋은 의미만을 저에게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한 교회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장의자가 아닌 극장식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예배드릴 때 장시간 앉아있어도 너무 편했지만 의자뿐만 아니라 본당의 구조도 극장 혹은 대형 공연장처럼 구성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예배를 관람하러 온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당시 함께 교회를 다니던 지체들에게서도 공통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무조건 편하고 좋은 것을 교회 안에 들여놓는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님을.

또 경기도 신도시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신도시 조성 시기와 맞물려 여러 어려움으로 5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멋진 교회 건물은 얻었지만 성도들은 거의 다 떠나버렸습니다. 수백 석 좌석의 본당이었지만 주일 예배에 온 성도는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제가 탐방을 간 날 마침 한 가정의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그 행한 본당을 보고는 1분도 안되어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갔던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하나의 교회를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탐방했던 교회들 중에 성경적인 교회 공간의 좋은 예로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는 김포신도시 상가 건물에 있는 ‘움직이는교회’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자모실을 교회 뒤편이나 구석에 배치하는 것과 달리, 이 교회에는 자모실이 예배 공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모실 천장이 뚫려 있어서 방음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어도 예배드릴 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아이를 조용히 시키거나 정숙한 예배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정들이 예배공간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온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로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 제 마음에도 좋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모든 지역, 모든 세대에 다 적합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기성 교회 스타일에 익숙한 장년 성도나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이런 교회나 예배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부부들과 청년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김포신도시라는 지역과 인구의 특성을 그 교회만의 교회관과 함께 교회 공간 속에 잘 담아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 교회임에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착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최근에도 듣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공간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며 접한 경험과 신대원에서 얻은 배움들이 어느 정도 쌓이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고민 중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하나의 교회 공간,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좋은 교회 공간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실리카, 로마네스크, 고딕, 또 현재 한국 교회에 주류를 이루는 여러 교회 공간의 형태들까지, 교회사 안에 다양한 그 시대를 풍미했던 교회 건축 양식이 존재해왔지만, 해당 교회 공간들이 갖는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달라져 왔습니다.

어떤 교회 공간이 정답인지 하나의 답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좋은 교회 공간이라면 성경적 교회관, 그 교회만의 예배 철학이나 방식, 속한 지역과 사람들, 시대(혹은 세대) 등에 대한 고려가 두루 잘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단순히 교회가 새 성전을 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물 안에서 공간 구성에 변화를 주며 다양한 하나님의 언어와 마음을 담아내어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고민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속한 지역과 사람들의 구성에 상관없이 건축과 공간에 있어 정형화된 비슷한 구조, 구성인 교회들이 많아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들 중에는 그러한 고민을 담아 구현해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깨달음과 도전이 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았기에, 앞으로 그러한 교회들이 곳곳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봅니다.



햇불트리니티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23년 설교자의 서재 독서모임 보고

2023년 12월 23일

08

설교자의 서재

차두진 (KMDiv. 2018)

독서 모임 개요

1.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성형성/실천신학센터(소장 안덕원 교수) 예배설교 클리닉의 세번째 시리즈로 ‘설교자의 서재’ 독서 모임 진행함. 기존에 진행해 온 독서모임과는 달리 오픈된 독서모임으로 진행하였으며, 매월 책을 선정하고 관심있는 책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진행함.

2. 설교자의 설교 준비, 설교자의 영성, 설교를 통해 전할 메시지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한 달에 한 권씩함께 읽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모임이 진행됨.

모임 기간 2023년 5월 ~ 12월

지도 교수 안덕원 교수

모임 간사 차두진 (KMDiv. 2018)

모임 운영 방식

10분 : 서로 인사 나누기

20분~30분 :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책에 대한 소감을 나눕니다.

50분 : 주제별 토의

10분 : 교수님 wrap-up & 책과 나눔의 내용을
묵상과 기도, 공지, 헤어짐

독서 모임 진행 이력

5월 26일 (금) 저녁 7시 20분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 정다운역,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6월 30일 (금) 저녁 7시 20분

김영봉, 『설교자의 일주일』

여름방학 특별 이벤트 ‘햇불트리니티의 신간’

7월 24일 | 김진혁 교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8월 7일 | 안덕원 교수, 『예배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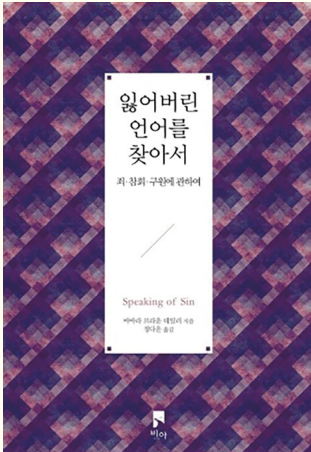
8월 21일 | 박형진 교수, 『지구촌기독교 선교 역사 이해의 지평들』

12월 22일 (금) 저녁 6시, 오프라인 모임

이자크 디네센 / 추미애역, 『바베트의 만찬』

5월 26일 모임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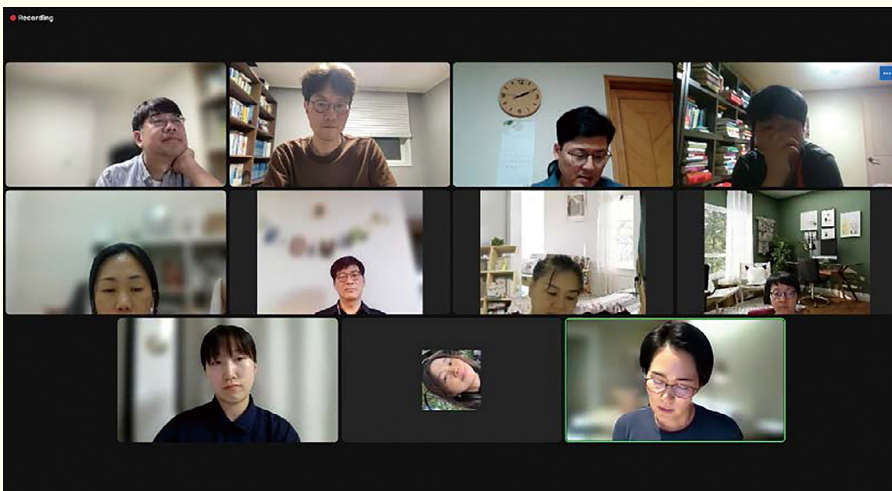


토의 주제

①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참회로서의 보속은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보속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행위구원은 아닐까?**

② 저자는 참회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는데, 공동체와 참회는 어떤 관계일까?**

③ 저자는 죄라는 용어가 그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심리, 상담학적인 용어로 퇴색하는 것을 지적한다.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나 현상을 목도한 적이 있나?**



8월 독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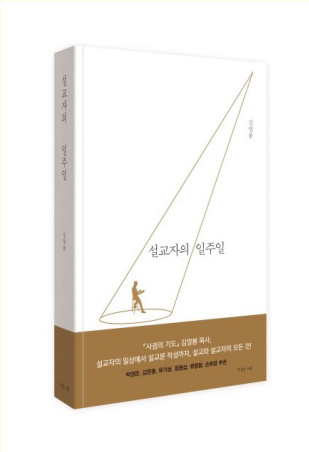
7월 독서모임



6월 30일 모임

김영봉의

"설교자의 일주일"



토의 주제

1. 서론, 설교와 설교자

...저자의 아버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평생 떨리는 마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분들로부터 들은 목회에 대한 조언이 있었나요?

그 조언이 목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자는 목회를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2. 에토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에토스를 성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섬김과 희생보다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단 종파로 여겨지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이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김세윤 교수가 지적했듯이 구원파적인 청의 교리에 매몰되어 성화의 삶, 거룩한 에토스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켜보게 합니다.

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거룩한 에토스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설교자,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현재 설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 **여러분의 일주일에는 어떻게습니까? 저자의 일주일과 비교해보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파토스

...파토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와 멘토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있나요?

또는 멘토가 있나요?

...설교자의 파토스 내용을 보며 생각나는 설교가 있나요?

그 분의 어떤 면이 긍정적인(또는 부정적인)모습으로 다가왔나요?

...예배의 파토스에서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인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데 집중하도록 예배 준비를 하도록 말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지키려하는 예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4. 로고스

...설교자로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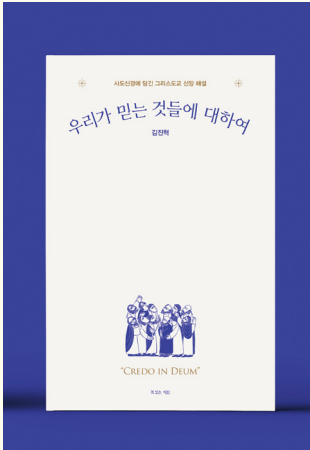
저자의 설교에 대한 태도와 준비 과정을 읽으며, 여러분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설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을 읽고 설교, 설교자에 대한 생각이 바뀐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7월 24일 모임

김진혁 교수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토의 주제

1. 사도신경의 해석에 초대 교부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학평론가 이 현우의 견해처럼 고전은 새로운 해석을 버티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달리 말해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해야한다는 말로 비쳐집니다.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의 천문학의 영향으로 성서 해석에서 역사비평의 새 지평이 열리고 이것이 성서 해석을 풍성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뇌과학이나 양자학은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이것은 성서나 사도신경 해석에도 또다른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듯합니다.

이런 식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학자들과 저서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현대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성서나 사도신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임태영)

2.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나'인데, 물론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인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된다고 좋은 해석을 해주셨지만, 니케아신경처럼 첫 단어가 '우리'로 시작하는 공동체의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들이 니케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 교회의 슬로건에 비추면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교수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임태영)

3.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가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 즉 신자들의 모임을 넘어 사도신경이 말하는 공교회는 사도성이나 보편성 등 더 깊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임태영)

4. 인간의 원형을 아담이 아니라 예수로 보는 것은,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다는 긍정이 있지만, 현실적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 너무 희망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학자들이 보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학자나 그 내용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영)

5.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의 2가지 모습으로 관계성과 타자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드셨는데,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조언이 필요한가요?** (최문정)

6. (책에 서두에 언급된 이야기에서) 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길에서 돌아서 버렸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신앙의 핵심적인 기도문을 천천히 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개인의 신앙에 대한 질문 :

- 그렇더라도 떠나는 것은 올바른 태도와 반응이 아니며, 신앙을 회복할 방도라도 찾아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기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 교회의 목양에 대한 질문 :

- 목회자와 교회는 왜 도라를 붙잡지 못했는가?
- 목양적으로 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 돌아버릴 만큼 바쁘진 않았는가?
- 목회자와 리더의 입장에서 도라와 같은 얕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 또 돌고 도라 방향의 길로 가버린 도라와 같은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김화평)

7. 교회의 교육에 대한 질문 :

-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리를 따분해하며, 교리 교육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교육을 통해 교리를 가르치지만, 보통 교육과정이 짧게는 1시간, 길어야 몇 주에 불과하다.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을 쪼개더라도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말해야 하기에 얕은 수준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고, 교리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전달해내기가 힘들다.

교리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화평)

8. 예전적 허용에 대한 질문 :

- 예배 참여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할 때, 그 자체를 충분히 음미하고 효과적으로 누리게 할 방도라도 있는가?
- 공동체 안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도신경을 특별하게 고백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 (김화평)

8월 7일 모임

안덕원 교수의, "예배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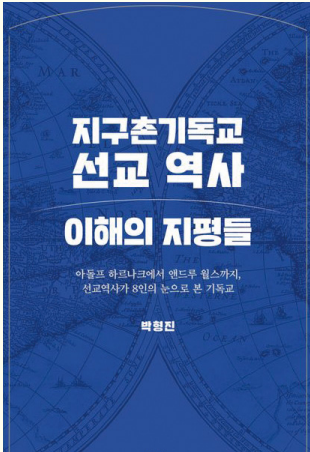
토의 주제

1. (질문, 토의) 초대 교회의 예배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의 예배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초대 교회의 예배 중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토의) 한국교회의 예배의 형식을 보면 교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회의 예배의 형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예배는 교회(교단)의 신학, 교회 공동체의 특성 잘 반영되어 있나요?** 만약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순서와 형식을 기획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연관된 질문) 교수님께서 추구하는 예배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만약 예배를 디자인하신다면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신지를 이유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3. (질문) **목사와 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배를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토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받는 것이라면,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배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 서로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5. (토의) 교회력을 잘 지키는 개신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교회력을 통해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력은 삶의 리듬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6. (질문) **성찬을 비롯한 성례전의 회복은 예배의 미래에 희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이 성례전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7. (토의) 예배꿀팁 책에서는 예배에 대한 많은 주제 중 특히 환대에 대한 강조가 보입니다.
예배에서의 환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환대를 경험해 본 예배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8. (질문) **'목회기도'가 무엇인가요?** (97p)

8월 21일 모임

박형진 교수의,

"지구촌기독교 선교 역사 이해의 지평들"



토의 주제

①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교적 시각의 교회와 예배학적 시각의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②한국 교회 내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책에 등장하는 많은 역사가들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개척자들이고 지지자였다. 선교 현장에 몸담았던 배경이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해외 선교의 경험이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면 교회, 선교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③지구촌 선교의 관점으로 20세기가 선교의 불황기가 아니라 가장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역사상 그리스도인의 수가 가장 많은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에 이어 한국의 기독교는 순차적 확장의 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일까?

한국 기독교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 국내 선교는 어디를 지향해야 할까?

12월 22일 모임

아이작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



토의 주제

①소설 속 등장인물 중 가장 인상깊었던 인물은 누구인가?

그 인물은 만찬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

②바베트가 베푼 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베트의 만찬을 성만찬과 연결할 수 있을까?

③기독교 신앙에서 식탁의 교제는 왜 중요할까?

④기억에 남는 식사 경험에 있었는가? 그 식탁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09

"그 한 번의 식사"

김화평 (KMDiv. 2015)



“우연이 계속되면, 그게 주의 뜻인 줄 알아요?”

나는 유명한 영화 대사를 패러디하며 아내를 대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 주님의 뜻이 아닐까? 혹시 대학원?” 그렇게

묻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애써 고개를 내저었다. 대학원

은 설마 아니겠지. 그저 우연이 겹친 것뿐이다.

동네에서 차로 20분 거리 시골에 있는 한적한 카페, 좀처럼 갈 일이 없는 옆 동네 쇼핑몰, 유명 백화점 1층 에스컬레이터 앞. 안덕원 교수님은 그곳에 계셨다. 어떻게 동선이 3번이나 겹칠 수 있지? 혹시 추적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내 말처럼 정말 그분의 뜻이 있는 걸까?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연구실에 한 번 오세요.”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글의 흐름을 잠깐 끊어보자. 본론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 문단에 대한 계획은 독서 모임 참여까지의 파란만장한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나는 독서 모임 ‘설교자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한정된 지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핵심 문장만 나열해도 글이 길어졌다. 무리하게 요약하려고 하니 글에 구멍이 났다. 마치 “히틀러는 미대 입시에 떨어져서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다.” 같은 느낌이었다. 어쩌면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는 게 나와 독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가자. 나는 독서 모임 ‘설교자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다.

설교자의 서재는 장점이 많은 모임이었다. 주로 신대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신대원 모임은 아니었다. 설교와 책이라는 키워드와 관련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다. 신학책 읽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모임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척 다행이었다.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신학 장르를 읽는다는 점이었다. 설교자의 서재라고 해서 설교학 책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때까지 읽은 책 리스트를 보면 예배학, 조직신학, 선교학 등 다른 분과의 책들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문학 고전을 읽는 모임이 파생되어 따로 운영되고 있다. 설교자에게 넓은 독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또 모임 분위기가 무척 좋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모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둔 기간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모였다. 유식한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많이 배울 수 있는 편안하고 풍성한 시간이었다. 멤버들은 책을 읽고 가벼운 리뷰와 질문을 밴드에 올렸다. 리더인 차두진 전도사님도 모임을 위한 질문을 준비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모임이 산으로 갈 일이 없었다. 가끔 교수님들의 저서가 선정 도서일 때는 저자가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다. 안덕원 교수님은 언제나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모임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주셨다.

어느 날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다. 12월에 오프라인 모임을 연다는 것이었다. 읽어야 할 책은 얇고 쉽다고 했다. 심지어 읽지 않고 와도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밥을 주는데 회비가 없다고 했다. 모임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일단 무조건 간다고 했다.

함께 읽을 책은 ‘바베트의 만찬(Babette's Feast)’이라는 단편 소설이었다. 사실 이 책은 나에게서는 무척 유명한 책이다. 작가들이 종종 인용하곤 했다. 주변에서 읽었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의 “언젠간 읽어야지 리스트”에는 오래전에 올라갔다.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였다. 분량도 100페이지가 안 되고, 난이도도 높지 않아서 도전이 어렵지 않았다. 여담이지만 대전에 동명의 독립서점이 있다. 성심당에 빵 사러 갈 때 시간을 내서 둘러볼 계획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자크 디네센(Isak Dinesen)이다. 이것은 그녀의 영미권 필명이고 본명은 카렌 블릭센(Karen Christanze von Blixen-Fineck)이다. 덴마크 사람이다. 아카데미 작품상으로 유명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의 원작 소설 작가이기도 하다. 바베트의 만찬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 감상하기를 추천한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스포일러가 싫다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길 바란다. 노르웨이 베를레보그라는 작은 마을에 한 루터교 목사가 있었다. 이 목사를 중심으로 마을은 행복하고 평안했다. 그에게는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딸이 있었다. 순수하고 경건한 여성들이었다. 목사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의 딸들은 마을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신적 구심점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에서 바베트라는 여인이 두 자매의 집으로 찾아왔다.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오갈 데가 없어졌기에 집안일을 도우며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바베트는 죽은 목사의 백 번째 생일에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스러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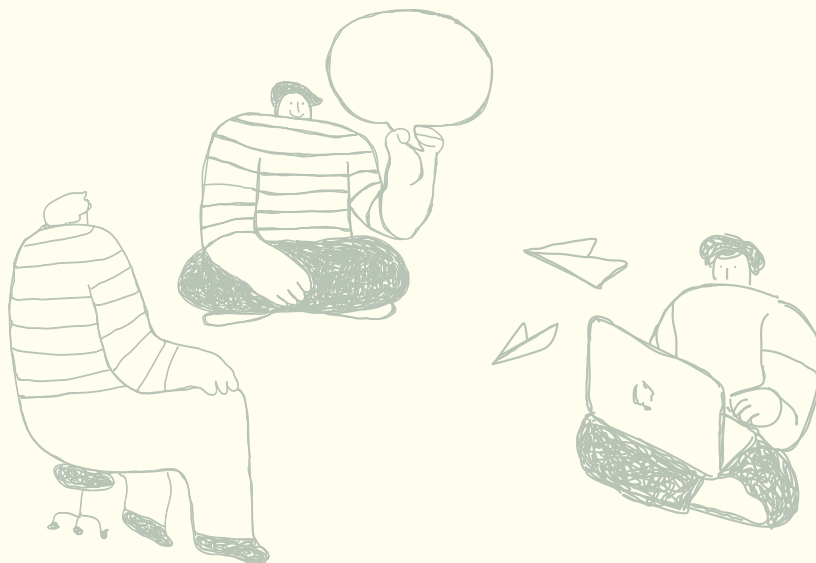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바다와 눈 덮인 산도 가로지른다.” 목사가 딸들에게 종종 해주던 말이 있었다. 이 책에는 ‘가로지르는’ 이미지가 종종 등장한다. 가로지름으로써 서로 다른 두 지점이 연결된다. 갈라진 틈이 메워져 하나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바베트는 노르웨이와 프랑스 사이를 가로지른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와 루터교도인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길이 놓인다. 그 모든 것의 정점이 바로 만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찬은 그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자리 이상을 가리킨다. 만찬은 목사를 기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지름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작중 등장인물인 로벤히엘름 장군은 감격 속에서 은총은 무한하다고 연설을 했다. 한 마디로 이 만찬은 무한한 은총을 가리키는 은총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만찬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만찬이 성만찬과 신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라는 말이 아니다. 성만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는 말이다. 바베트는 이 한 번의 만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만찬은 비교할 수 없는 최선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나누셨던 떡과 잔은 자기 몸과 피, 즉 자기 생명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질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설교자의 서재 오프라인 모임이 열렸다.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었던 식사 시간. 이야기가 오가는 틈틈이 은총에 대해 생각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양한 해석을 나누며 만찬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진행자가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나요?” 질문을 던졌다. 어떤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와 화해를 위해 마련한 식사의 자리. 그 당시에 일 인당 7만 9천 원씩 하는 무척 비싼 식사였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는 분께서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해주시기까지 했다. 그 식사의 자리는 영영 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다. 바베트의 만찬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가로지르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나누어주신 그 전도사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 한 번의 식사.’ 나에게도 그렇게 평생 기억될 식사가 있었을까? 문득 아까 글의 흐름을 끊고 넘어갔던 ‘과정’ 중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연구실에 가던 날, 교수님과 학교 앞 맛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밥은 맛있었다. 하지만 강렬한 파란색 네온 빛과 손님들로 꽉 찬 식당은 나를 무척 정신없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교수님을 대면하느라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다. 실수하지 않도록,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썼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 정신없는 한복판에서 교수님께 내 마음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영화의 효과처럼 잠깐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다시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었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우연이 계속된다고 그게 주의 뜻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맞는 것 같다고. 은총은 우연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주의 뜻이다.



정회찬 (KMDiv. 2021)

2023년 2학기 교회탐방

01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에덴낙원



날짜: 9월 15일(금)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235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449-82 (에덴낙원)

인원: 20명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1989년에 한국기독교 100주 기념재단에 의해 처음 개관되었다. 우리는 2023년 6월에 새롭게 개관된 곳으로 탐방을 갔다. 기념관으로 올라가는 언덕길부터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 6.25전쟁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드린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스치며 올라갔다.

이곳에는 시청각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순교자들의 신앙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기념관을 구경하는 내내 슬픔과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떠나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다. 어느 학생은 가족의 이름이 순교자 명단에 기록된 글을 발견하기도 했고, 작은 예배당 안에서 홀로 기도하거나 순교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학생들도 있었다.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선조들의 삶을 보며 사망이 드리워진 그들의 시기에도 생명의 빛을 비추었던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교회탐방이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걸려 있던 시]

"순교자는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무덤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본다.
그분에게 구원을 부르짖는다.
그분처럼 입술에 용서를 머금는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누가 그 무리에 합류할 것인가?"

레지널드 히버(Reginald Heber),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터로 나가신다'
(The Son of God Goes Forth to War)

[02] 세계성막복음센터



날짜: 10월 3일(화)

장소: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길 247(세계성막복음센터)

인원: 29명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한 10월, 평택에 위치한 세계성막복음센터로 교회탐방을 갔다. 이렇게 규모가 큰 성막센터는 전 세계에 세 곳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성막센터가 가장 크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성막을 보러 온 사람들과 함께 관람을 시작했다. 먼저 구약학 교수님께서 영상을 통해 20분 정도 성막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이후 줄을 지어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그림 전시를 관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걸어가며 관람을 하다보니 속도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다. 주옥같은 그림들을 집중해서 보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유물들과 모형들을 지나 성막센터의 하이라이트인 거대한 성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실제 규모대로 성막의 모형이 재현된 것이 신기했다. 마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뜰과 문을 지나 제단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은 좁은 길 이 아니라 넓은 길임을 몸소 느꼈다. 지성소에서 어느 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은 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축복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막체험이 마무리되었다. 구약의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다.

03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날짜: 11월 10일(금)

장소: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214번길 10-13 (장대현교회를 재현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춘로 110 (소래교회를 재현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인원: 8명

초대교회의 신앙 회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장대현교회를 2007년에 축소 복원하였다. 박물관에는 “한국 기독교 문화 창달”이라는 목적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소중한 다양한 문서들이 수집되어 있었다.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분리된 예배당 안에 들어가 과거 예배의 환경을 느낄 수 있었고, 교회 밖에 있는 종을 치며 그 당시 예배당이 한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인에 위치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를 축소 복원하였다. 총신대 학생들이 기도실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날씨가 추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소래교회 안에 자유롭게 둘러앉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옛날 교회를 연달아 탐방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2023년 마지막 교회탐방을 끝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나는 설렘을 느낄 뿐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과거의 교회들을 만나며 잃어버린 신앙을 찾은 듯한 감격스러운 교회탐방이었다.

Information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TTCSP, Torch Trinity Center for Spiritual Formation and Practical Theology)는 영성, 예배설교, 여성리더십 등 세 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예배설교분과에서 1년에 두 차례 발행하는 매거진입니다.

- 예배설교분과에서는 설교클리닉, 예배클리닉, 사역클리닉, 독서모임, 교회건축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활동내용과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문의는 안덕원 교수(dw.ahn@ttgu.ac.kr) 혹은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02-570-7565, ttcsp@ttgu.ac.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TTGU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와 예배설교동아리, TTGU동문회가 함께 2024년 1-2월 [설교자의 서재] 독서모임을 진행합니다. [무신론자들의 망상](데이비드 벤틀리 하트) 독서모임은 1월 25일과 2월 1일에, [사랑이 한 일](이승우) 독서모임은 2월 15일에 갖습니다. 저녁 7시 20분에 줌(Zoom)으로 모입니다.
-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학교 홈페이지 왼편에 위치한 기부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용도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실천센터”로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 예배설교분과의 활동과 매거진의 발행을 위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김월섭 동문(MTS, 2017), 축복이넘치는교회(김태호 목사 및 성도님들), 제자들교회(김경한 목사), 푸른희망교회(김근태 목사), 초양교회(강환식 목사), 참좋은교회(김순재 목사), 월미도교회(윤영수 목사).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출처

17p 너는 흙에서 왔으니 © 고아라

24p © 권예찬

28p 동송교회 © 정광일, 국수교회 © 안덕원

29p 움직이는교회 © 김소연

32p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비아), 7-8월 독서모임 © 안덕원

33p 설교자의 일주일(복 있는 사람)

34p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복 있는 사람)

36p 예배 꿀팁(홍성사)

37p 지구촌기독교 선교 역사 이해의 지평들(IVP), 바베트의 만찬(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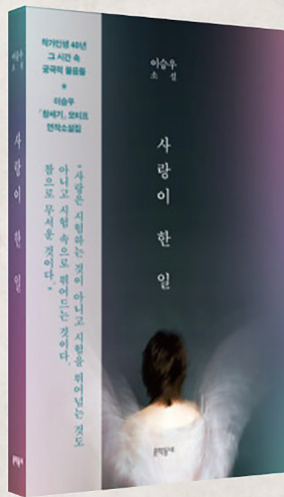
42p 에덴낙원 © 안덕원

43p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 정희찬

44p 세계성막복음센터 © 정희찬

45p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 © 정희찬

++
++
++
++



『사랑이 한 일』 이승우 작가와의 만남

2024. 2. 6 (화) 19:00~
문의) dwa66@naver.com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영성형성/실천신학센터 예배설교분과

++
++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모두를 위한 예배와 설교

발행인	오덕교
편집인	안덕원 권예찬 정희애
디자인	권예은
펴낸곳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 31길 70 02-570-7372(대표) 02-570-7565(센터) ttcsp@ttgu.ac.kr (센터)

ISSN	2982-5377
발행일	2024년 1월 30일
통권	3호



www.ttgu.ac.kr